

“초록 연잎 사이로 하얀 꽃망을, 놓치지 마세요”

‘무안 연꽃축제’ 24~28일 화산 백련지 일원

불교조계종과 공동개최... 무료입장 올해가 마지막

무안군의 대표 축제인 '2013 무안 연꽃축제'가 동양 최대 백련지인 일로읍 화산 백련지에서 24일 막이 오른다.

올해 연꽃축제는 처음으로 대한 불교조계종 호남 6교구 본사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삼을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연꽃축제 입장료를 받을 방침이어서 올해가 무료 입장 마지막 해가 될 전망이다.

28일까지 5일간 이어지는 축제는 개막식에 이어 연꽃과 불꽃놀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초청 법회와 타악 퍼포먼스, 연료경연대회, 퓨전국악한마당 등 40여개의 다채

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축제장 주변에는 백련지 연등길 걷기, 세계 연 전시관, 신비의 연꽃길 보트탐사, 시골길타, 농수특산물 홍보와 전시판매장 운영 등 20여개 부대행사도 준비됐다.

특히 내손으로 소원지 달기, 소원 오로 만드는 연꽃, 불교 천연염색, 발우공양 체험, 불교의상 전시 등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관광객과 함께한다.

무안군은 관광객들이 지루하지 않고 행사장 전체를 관람,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동선을 구성했으며 야간 경관조명 등 볼거리, 즐길거리를 빠뜨리지 않을 방침이다.

또 연꽃을 보다 더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호수내 데크시설을 보강했다. 보행자 그늘 쉼터와 물놀이 체험시설을 확보하는 등 무더위 속에서도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민반의 준비를 마쳤다.

연꽃이 불교와의 연관성이 깊은 만큼 이를 활용, 불차 탐방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종교성 짙은

불교행사는 자제하는 등 전 국민의 축제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불교계와 축제를 함께 열기로 한 것은 지역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꽃이 갖는 불교의 상징성 등을 고려했다”며 “1회성이 아닌 주민의 소득과 연계된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축제가 열리는 화산 백련지는 수 상유리은실, 산책로 등이 잘 갖춰져 있는 동양 최대의 흰 연꽃(백련) 자생지로 전체 면적이 32만6000여㎡에 달한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오는 24일 무안 대표축제인 2013 무안 연꽃축제가 열리는 일로읍 화산 백련지 전경.



청정 심해수에서 물장구치며 여름나기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전국 3대 우수 해변인 울포 솔밭해변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하 120m에서 뿜어져 나오는 청정 심해수를 사용하고 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 보성군 울포해수욕장에 이번 주말에만 6000여 명이 넘는 어린이집과 초등학생 이용객들이 찾았다. 울포해수욕장은 보성군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로, 지난해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영암 무화과, 농작물 재해보험 제외

郡 심의회 소극적 대처에 재배농 대책마련 촉구

영암군이 지역 특산품으로 지리적 표시 등록된 무화과가 농작물 재해보험 신규도입 품목에서 제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영암군이 재해보험 신규도입 품목 가입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1일 영암군에 따르면 무화과는 삼호읍을 중심으로 640여 농가가 연간 약 3600t을 생산해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화과 재배 시점이 장마, 태풍 등이 잦은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해당이 안 돼 자칫 자연재해를 입을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은 지난 6월 농식품부가 2014~2017년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신규도입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한 '재해보험 추가 품목 심의회'에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서류도 부실하게 제출하는 등 무성의하게 대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제218회 영암군의회 정례회에서 이보라미(여·통합진보당)의원의 군정질의를 통해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군정질의에서 “무화과

수확철이 태풍 상륙시기와 일치해 지난 해에만 100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영암군은 피해상황에 대한 자료준비도 없이 생산농가 대표만 참석시키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무화과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무화과 재배농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김모(57)씨는 “당장 올해 태풍 피해가 걱정”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지자체별 추가소요 품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만큼 별도 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광양제철 “직원 건강은 회사의 경쟁력”

식습관 개선 위한 나트륨 줄이기 나서

광양제철소가 직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식습관 개선에 나섰다.

광양제철소 구내식당은 이에 따라 국내 직장인 기준 섭취량 6800mg에 비해 4000mg으로 낮추기 위해 매주 수요일 국 없는 날을 운영해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는 국 대신 누룽지와 죽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구내식당의 기준 1일 나트륨량

은 4500~4800mg으로, 기준 섭취량보다 2000~2300mg이 낮았다.

또 조리 시 인공조미료 대신 자연 재료를 활용해 만든 천연 조미료를 사용, 직원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교대 근무자들을 위한 저녁 간식에도 웰빙 바삭이 불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최근 교대 근무자들에게 제공되는 간식 10여 종 가운데

플레스테를, 포화지방 등 이상 지질혈증을 유발하는 성분 함유량이 1일 기준치를 초과하는 간식을 공지하고 저염 간식류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광양제철소 협의회 위원들도 복지센터 대식당과 현장 식당 등 다섯 곳의 구내식당에서 피켓을 들고 점심을 먹으며 오는 직원들에게 전단지 등을 나눠주며 나트륨 섭취량을 줄여 건강을 지키는 홍보에 적극적이다.

이에 앞서 비만과의 전정 선포, 건강한 음식문화 위화 귀가전사 제도

도입, 금연을 넘어 절주 운동, 직원의 건강을 회사의 경쟁력이라 방침을 정하고 직원 건강 챙기기 운동에 팔을 걷고 있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직원들의 건강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판단 아래 직원들의 식단부터 운동에 이르기까지 기업 차원에서 챙길 것”이라며 “숙련된 직원들의 연령대가 40대 이상이라는 특이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에 ‘구조로봇’ 뜬다

무선 조종·전국 4곳 배치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에 인명구조용 로봇(사진)이 배치됐다.

21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을 맞아 검은모래 해변으로 유명한 만성리 해수욕장을 찾는 물놀이객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18일 해수욕장에 인명구조용 로봇 1대를 배치했다.

무선으로 조종되는 국내산인 이 로봇은 길이 1m30cm 폭이 45cm, 19노트 속력의 워터제트 방식으로 추진되는 유선형의 작은 모형 배 모습을 하고 있다.

배의 뒷부분에는 물에 빠진 조난자가 팔로 붙잡거나 상반신을 의탁할 수 있도록 반원통형 튜브가 부착돼 있다.

해경청이 해수욕장에 인명구조로



봇을 배치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만성리를 포함, 서해안 태안 만리포, 동해안의 포항 영일대와 울산 진해 해수욕장 등 총 4곳에 배치됐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속도가 빨라 조난자에게 최대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며 “이번 여름 해수욕장의 안전 지킴이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세 얼굴

“항구도시 장점 살려 산업 키우겠다”

윤진보 목포부시장



목포시 부시장에 윤진보(57) 전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이 취임했다.

신임 윤 부시장은 19일 열린 취임식에서 “목포의 미래는 해양·관광중심도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개발, 교육과 문화진흥, 함께 사는 복지사회, 서남권 광역도시 건설이라는 시정방침에 잘 담겨 있다”며 “미려하나마 그동안의 공직경험과 행정지식을 살려 목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항구도시라는 장점을 살려 산업을 키워나가면서, 역사와 생활이 공존하는 원도심을 아름답게 가꾸는 노력도 필요하다”

다”며 “이러한 사업들이 견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양 출신인 윤 부시장은 건축공학 석·박사 학위를 보유한 학과파로, 전남도 기획실, F1대회 준비 기획단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목포 부시장 취임으로 전남도 기술직 공무원 가운데 첫 부시장(3급)이란 기록도 세우게 됐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100년 역사 옛 일본영사관서 ‘팔도 아리랑’

목포 원도심 25~28일 ‘세계마당 페스티벌’

25일부터 28일까지 목포 원도심 일대에서 열리는 제13회 세계마당 페스티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역대 마당페스티벌과 다르게 이번 축제에 주목받는 이유는 ‘한여름 밤의 꿈’을 테마로 한 공연예술 단차가 근대도시 100년의 역사문화 간직할 옛 일본영사관, 국도 1·2호선 도로 원표, 옛 동본원사, 목포 1935 등 7개소를 무대로 삼아 펼쳐지기 때문이다. 7곳의 무대는 북두칠성 별자리를 상징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공연은 26일과 27일 오후 9시 옛 일본영사관에서 펼쳐지는 ‘팔도 아리랑’이다.

팔도 아리랑은 한국 최초의 부토(Bhutto) 명인 서승아(사진)씨가 인간문화재 이생강 선생의 대금연주에 맞춰 ‘육망이라는 이름의 쇠사슬을 차고 시간이라는 칼

날 위에서 춤을 추듯 살아가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이다.

게다가 일본영사관 뒤뜰에 위치한 길이 82m 높이 2m의 토굴에서 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무대 점검 차 목포에 온 서승아씨는 “국내보다 유럽에서 더 유명한 부토는 한마디로 영혼의 춤, 죽음의 춤, 삶의 춤”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보는 관객에 따라 해석이 다르고 느끼는 감정이 다를 뿐만 아니라 똑같은 공연도 처음 볼 때와 두 번째 볼 때의 느낌이 다른 것이 부토의 진정한 묘미”라며 “감정이입을 극대화시킨 절제된 동작이 많아 그 어떤 공연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극단 깃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번 세계마당페스티벌에는 국내외 6개국 51개팀이 참가해 마당극·인형놀이·탈춤·국악·춤·마임·서커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크루즈산업도 전남 확대

여수·광양 제외... 道, 부두시설 증강 등 건의키로

전남도는 정부의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전남이 제외됨에 따라 여수항의 부두시설 증강 등 대책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은 여수 크루즈선 부두시설의 15만t급(현재 8만t급) 증강 및 증설 비용(200억원) 지원, 여수 크루즈 부두 배후부지 확보를 위한 신북항 엑스포 매각 예정부지 10만㎡ 매각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192만㎡)의 크루즈선 건조기술 개발과 연구개발 지원지구 개발도 건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크루즈 전용부

두 건설 등을 골자로 한 크루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크루즈 전용부두 증설, 항만부두 내 복합관광 인프라 구축, 터미널 내 면세품 인도장 설치, 연안항 크루즈 겸용 부두 개발 등이 담겼다.

크루즈 인프라 확충 계획에서 해양수산부는 부산·인천·제주에만 우선 2015년까지 10만t급 규모로 부두를 조성하기로 했으며, 여수와 광양 등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크루즈 산업 대책에서 전남이 혜택을 받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국통합의학포럼’ 출범

통합의학과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광주·전남 통합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한국통합의학포럼’이 출범했다.

전남도는 최근 담양 명문요양병원에서 한국통합의학포럼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통합의학포럼은 통합의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광주·전남지역 대학교수와 의료인들이 중심이 된 조직이다. 발기인대회에서 이들은 전남도가 통합의학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제를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

초대 상임대표로 정홍준 광주하나통합의원 원장이 추대됐다. /정철수기자 bungy@kwangju.co.kr